

# 삼성전자계열 오늘부터 접수... 주요그룹 상반기 공채 스타트

**삼성전자** 직무역량 중심 평가  
**현대차** 역사에세이 작성 폐지  
**LG** 자격증 등 스펙 입력란 삭제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이번 주부터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본격 돌입한다. 사진은 삼성 대졸 신입사원 공채 직무적성검사 GSAT를 보기 위해 입실 중인 취업준비생들 /삼성그룹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이번 주부터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대기업들은 구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용절차는 간소화하면서도 직무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채용하려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일부 기업은 서류 검사 등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그룹마다 구체적인 채용 인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최소한 예년 수준의 채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12일부터 전자 계열사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14일부터는 비전자 계열사 등에서도 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졸업 예정자나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

한 총 1만명 가량을 상·하반기에 채용할 방침이다.

필기시험인 'GSAT'는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GSAT 과목은 올해부터 상식이 폐지되고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등을 실시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에 따라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는 상식을 제외하고 직무 관련 지식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일부터 상반기 신입 공채를 시작했다. 모집 부분은 연구개발(R&D), 구매·부품개발·플랜트 등, 전

락지원, 소프트웨어 등이다. 다음달 8일 인적성검사, HMAT을 시행하는 한편 수시로 상시채용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지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역사에세이 작성을 6년만에 폐지했다. 지원자들이 역사에세이 시험을 위한 별도의 공부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이번 채용과정에서 제외했다.

SK그룹은 오는 23일까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10개 계열사가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 필기시험인 'SKCT'는 내달 22일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SK그룹은 2015년부터 입사지원서에 학력, 전공, 학점만 기재하게 하고 해외연수 여부, 사진 등은 제외하는 등 스펙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만명 신규채용을 발표한 LG그룹은 LG전자가 23일까지, LG화학·LG디스플레이 등은 16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지원자별로 최대 3곳의 계열사에 지원할 수 있다.

LG그룹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기조

에 맞춰 입사지원서에서 어학성적, 자격증 등 스펙 입력란을 없앴지만 내달 7일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에서 인적성검사와 함께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하는 ITQ테스트를 함께 치른다.

롯데그룹은 20일~29일 그룹 공채를 진행한다. 내달 말 필기시험, 5월 중순 면접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롯데는 이번 채용 자기소개서 평가에 AI를 처음 도입했다. AI는 인재상에 맞는 부합도 및 직무적합도, 표절 여부 등 영역을 분석해 적합 인재 여부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CJ그룹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받는다. 올해 상반기 공채를 통해 1000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기업 한 인사담당 관계자는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에 구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에 나타낼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롯데 부회장단, '후의 공백' 메우기 총력

**베트남 방문·현지투자 확대 논의**  
**LC UK 등 유럽현지 사업장 방문**

신동빈 회장 구속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롯데그룹이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총수 공백'을 메우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지나해 조직된 4개 사업부문(유통·화학·식품·호텔·서비스)을 이끄는 부회장단도 각 사업부문에서 등번호를 주고 있다.

11일 롯데에 따르면 황 부회장은 지난 8일 베트남을 방문해 응웬 수언 폭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현지 투자 확대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롯데는 1990년대 식품·외식사업 부문을 시작으로 유통·서비스·건설 등 그룹의 핵심사업이 잇달아 베트남에 진출하

며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지알에스, 롯데시네마, 롯데자산개발,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등 16개 계열사가 진출해 있으며 1만1000여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황 부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롯데가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고 "롯데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부문의 투자와 고용 창출,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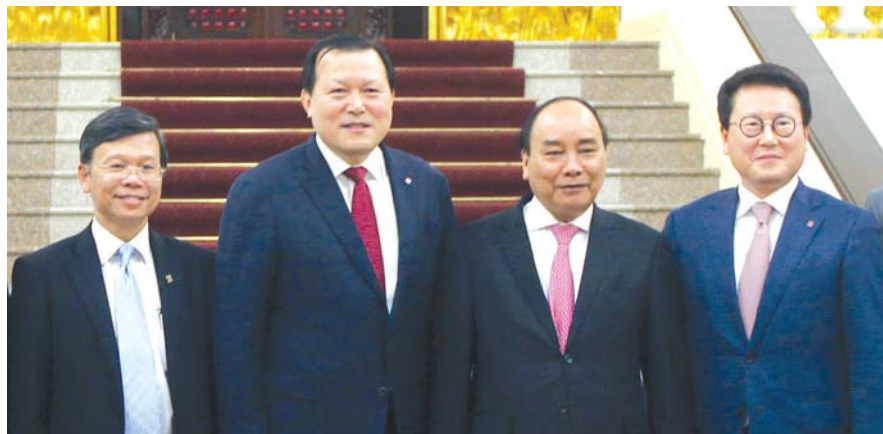
평소 가으면 신 회장이 직접 방문했었지만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황 부회장이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회장 대행 역할을 했다.

황 부회장은 한일 롯데 간 연결고리 역

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일본롯데홀딩스 핵심 경영진과도 수시로 소통하며 재점화 조짐을 보이는 총수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 부문을 총괄하는 허수영 화학BU 부회장이 황 부회장을 도와 조직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황 부회장은 이달 중 롯데케미칼과 롯데첨단소재 중국 자회사와 여수, 대산, 울산의 국내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동남아 출장길에 올라 말레이시아 롯데케미칼 타이탄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석유화학회의(APIC)에 참석한다.

허 부회장은 오는 6월에는 롯데첨단소재, 롯데정밀화학, LC UK 등 유럽 현지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롯데 황각규 부회장(왼쪽 두번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수언폭 베트남 총리(왼쪽 세번째)를 만나 현지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롯데지주

식품 부문을 총괄하는 이재혁 부회장은 국내의 사업장 정기교류 강화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식품 부문이 강한 일본 롯데와의 교류를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나해에도 10여 차례 이상 진행한 한일 롯데 식품 계열사간 교류회는 이달 말까지 마케팅, 영업, 생산, 연구, 글로벌 등

분야에서 5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송용덕 부회장이 총괄하는 호텔&서비스BU도 최근 롯데호텔, 롯데JTB, 롯데면세점, 롯데홈쇼핑 등 주요 관광·유통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지나해 12월 오픈한 일본 롯데 아라이리조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등 일본과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추세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20대 경제활동인구, 60대 이상에 '추월'당해

인구 고령화와 청년실업 악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20대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경제활동 인구는 406만3000명으로 2016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보다 25만7000명 늘어난 421만 명을 기록해 20대 경제활동인구를 넘어섰다.

통계청은 지난해 노인인구와 20대 인구 모두 증가했지만 고용 한파로 구직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인구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대상 기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친 것이다.

몸이 아프거나 육아·취업 준비 등들이

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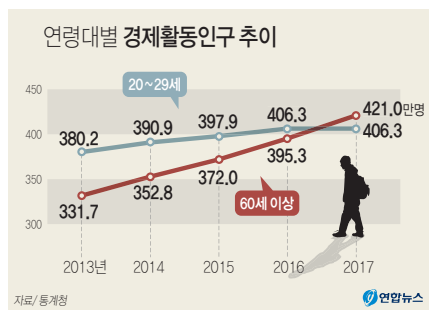
무엇보다 지난해 20대 경제활동 인구가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에 추월당한 데에는 최근 가속화한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은 2016년보다 49만5000명이나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각각 1000만 명, 4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20대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서면서 노인 경제활동 인구의 청년 경제활동 인구 추월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경제활동에 소극적인 청년들의 모습은 인구 대비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감 추이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20대 인구 또한 636만 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층의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유형인 취업준비생은 전년보다 4100명 늘어난 66만900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000명을 뛰어넘으며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인구 증가 대비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지나해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

## 韓, 4차산업혁명 핵심인력 OECD '꼴찌'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짚어줄 핵심인력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육체노동자 등의 비중은 OECD보다 높았다.

너나 할 것 없이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단독 교과로 편성해 관련 인재를 조기에 키우고 정보통신 분야 관리자도 더 많이 육성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파이퍼치연구소가 펴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인력 현황 및 개선방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력으로 꼽을 수 있는 비반복적 인지노동자, 즉 핵심인력 가운데

전문가 비중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가 21.6%로 OECD 회원국 29곳 평균(42.2%)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가장 낮은 터키(21%)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59.4%로 전문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스위스(52.6%), 노르웨이(52.6%), 스웨덴(52.1) 등 유럽국가가 주로 상위에 올랐다.

비반복적 인지노동이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업 최고경영자(OEO) 등을 말한다.

핵심인력 중 관리자 비중은 에스토니아가 12.1%로 전체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호주도 11.4%로 높았다. OECD 평균은 6.5%다. 반면 한국은 1.3%로 29개국 중 꼴찌였다.

이런 가운데 음식점 종업원 등이 속하는 비반복적 육체 노동과 부품조립원 등이 포함되는 반복적 육체 노동 비중은 한국이 각각 22.5%, 25.1%로 OECD 평균인 17.6%, 16.5%를 크게 웃돌았다. /김승호 기자 bada@